

# 개발사업자 자본검증 논란 법정으로...

### 신화련 “공사 전 자금 예치 요구 위법”... 도 상대 소송 소송 결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도 영향 미칠 듯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사업자를 상대로 벌이는 자본 검증 방식의 시시비비가 법정에서 가려진다. 제주도가 사업자의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내건 ‘공사 전 투자자금 예치’ 요구에 대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은 비슷한 논란을 겪는 도내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신화련금수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신화련)는 지난달 3일 원회용 제주지사 상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신화련은 중국에 본사를 둔 신화

련그룹의 자회사다. 이 회사는 2021년까지 7431억원을 들여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86만6539㎡ 부지에 숙박시설(664실), 휴양문화시설, 컨벤션, 골프아카데미, 6홀 코스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신화련금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신화련이 기한 내에 투자자금을 예치(돈을 맡기는 일)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사업시행승인 효력을 무효화했다. 앞서 제주도는 2019년 12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자기자본 516억원과 차입금 253억원 등 모두 770억원을 공사 시작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화련의 사업 계획을 통과시키자 이듬해 3월 사업을 승인했다.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자 적격 여부와 투자자

본의 건전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인허가 조건으로 내건 ‘착공 전 투자자금 예치’는 개발사업자의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는 자본 검증 방식의 일부로 제주도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미리 예치해 자본 조달 능력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예치금으로는 자기자본의 약 10%를 요구한다.

반면 신화련은 이런 방식의 자본 검증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주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착공 전 투자자금 예치 요구는 재량권을 일탈해 과도하고,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일보는 신화련 측과 법률대리인 측에 구체적인 입장 등을 물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가장 자본검증위원회를 꾸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제이씨씨에도 총 사업비 5조2000억원 중 자기자본 10%에 해당하는 3373억원을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제이씨씨가 이를 거부하자 자본검증위는 2019년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본조달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며, 이듬해 도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

제주도는 자본 검증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개발사업심의위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 위원회가 자체 판단에 따라 사업 계획 통과 조건으로 자금 예치를 요구한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조만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약취관리지역 지정요건 규정은 합헌”

### 도, 한림일대 관리지역 지정 현재 “주민건강·환경 위한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약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지역을 약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취방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제주시 한림읍 등 10여개 지역의 양돈농장 59개소를 약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약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약취관리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약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약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약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약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제주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근거법률인 약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약취로 인한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을 약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약취 문제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에 긴급하고도 중요한 공익”이라며 “심판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3개소(117개소, 서귀포시 26개소)에 대해 약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중 2개소는 지난해 폐업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기준치를 초과해 약취가 발생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약취관리지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노형동서 차량 가게로 돌진... 3명 다쳐

제주시 노형동 주택가에서 차량이 인근 상가로 돌진해 3명이 다쳤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골목에서 차량이 음식점으로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인근 사거리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 1대가 가게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등 3명이 다쳤으며 차량과 부딪힌 가게 출입문과 내부 물품 일부가 파손됐다.



음식점으로 돌진한 차량. 사진·독자 제공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다혜기자

# SUV 화단 충돌 운전자 숨겨

SUV차량이 화단과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5일 제주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2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교차로에서 신창리 방면으로 향하던 A(49)씨의 차량이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차량은 이후 도로 옆 가로등을 제차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다혜기자

# “과로사 예방대책 마련하라”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택배 제주지점을 향해 분류인력 투입 등 과로사 대책, 노조탄압 진상결과 발표 등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0월 과로사 대책을 발표한 뒤 달달이 지나도록 분류인력을 단 한명도 투입하지 않았을 뿐더러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우리는 같은 택배 노동자로서 죽음의 위험과 갑질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롯데택배 노동자들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다혜기자



누가 버렸나... 5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서 바다환경지킴이들이 모래속에 묻혀 있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해경·국과수, 인양된 32명민호 합동감식

### 악천후로 수중수색 일시중단

사고 옛세 만에 육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32명민호에 대한 합동 감식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기상악화로 수중수색은 일시 중단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일 인양한 32명민호 선미를 제주항 7부

도로 옮겨 5일 오후부터 본격 감식에 들어갔다.

감식 현장엔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해양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양안전심판원, 해상교통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4일 제주항 서방과제에서 예인선과 바지선을 투입해 선

체 중간 부분의 양망기와 길이 12m의 선미 일부를 들어 올렸다. 흑시모를 실종자 유실에 대비해 선미 주위에 그물을 설치했지만, 선미 내부에서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5일 오전 8시쯤부터 기상악화로 수중수색이 일시 중단됐다.

한편 해경은 현재까지 3구의 실종선원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남은 실종 선원은 한국인 1명, 인도네시아인 3명 등 4명이다. 강다혜기자

**천혜향 한라봉 레드향**

**강력한 신맛억제 효과!!!**

산도 DOWN 당도 UP

**신맛제거제**

판매처 : 명농원  
대표 김달식 010-3697-5624  
진영기업(주) 제주지점

당일생산! 당일발송!

**동영 청정바다 생굴**

믿을 수 있는 동영굴수협  
정식등록 지정종도매인23년!

도매업인데 비싸서 되겠습니까?  
더 이상 비싸게 사지 마세요!  
품질 좋은 최상급 생굴을 부대비용을 줄여  
저렴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신있습니다! 가격 부담을 낮춰 드리겠습니다.

최상급 생굴 5kg 小 中 大  
최상급 생굴 10kg 小 中 大

생굴을 먹을 수 있는 철이다! 굴~ 하면 동영이다!!  
겨울철 바다의 싱싱함을 그대로 집에서 맛볼 수 있는  
산지직송 동영굴이 택배로 배송된다!

주소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49-1 청정수산  
계좌 : 수협 776-62-037473 이선곤

주문 전화 010-2110-8506 / 010-3551-2352

당일 시세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부담없이 가격 문의주세요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높은 저장성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코코리입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흡수를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홍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미네랄을 제공함

필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많은 물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와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균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식근을 유도하고 미세균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2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